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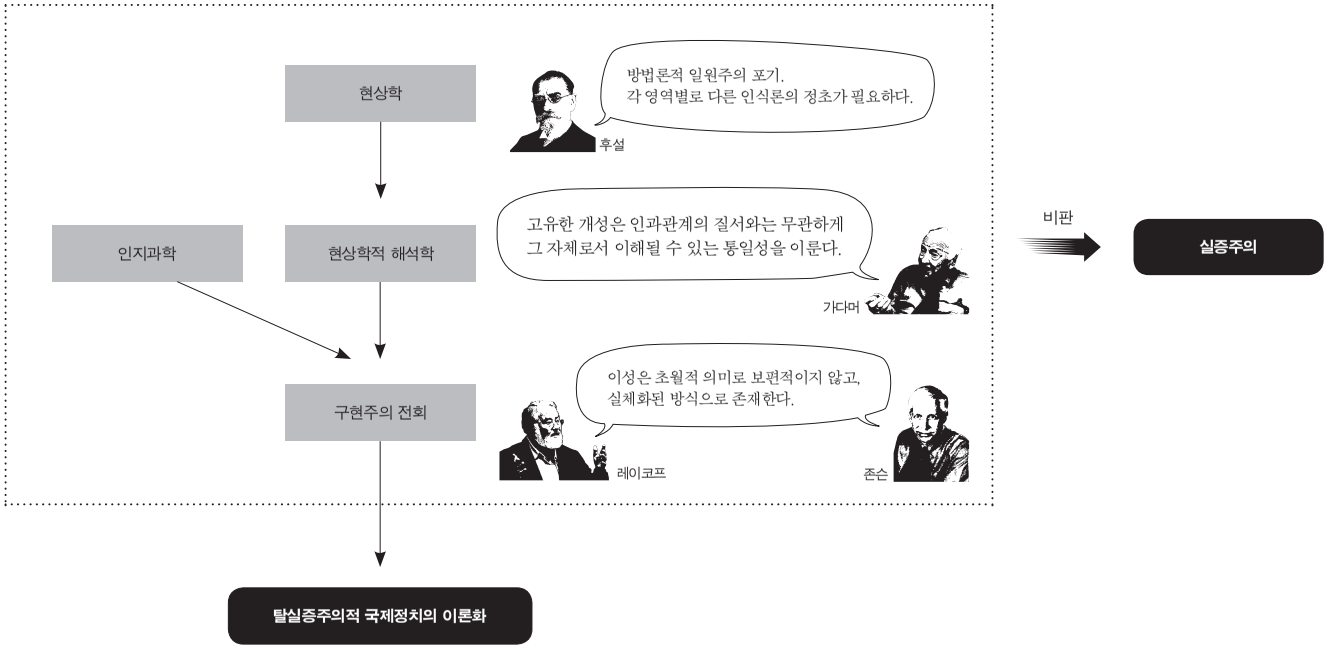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 인식론의 모색

Post-positivist Turn in the Epistem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전재성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이 글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2S1A3A2033665).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 인식론 모색



시네ㄱ세ㅈㅣㅇㅊ | 20_5.indb 72 14. 5. 9. 오후 12:20

최근의 국제정치학 이론계는 1980년대 말 이후 탈실증주의 인식론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며, 역사적 전회, 역사사회학적 전회, 언어적 전회, 실천적 전회, 심리학적 전회, 탈근대적 전회, 탈식민적 전회, 비판이론적 전회, 탈서구적 전회 등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자연과학 인식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인식론을 찾는 동시에 국제정치현실이 발 디디고 있는 존재론을 재구성하며, 가치중립성이 무비판적으로 전제된 가치론적 현 상황을 비판한다. 많은 전회들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결과에 대해 이론적 다원주의, 인식론적 다양성, 혹은 급기야 국제정치이론 종말의 상황을 논하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서구 근대를 관통한 합리주의,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적 흐름들 전체를 총괄하지 않고는 현재 국제정치학 이론계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 글은 탈실증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출발점을 살펴보고 국제정치이론의 메타이론적 전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의 국제정치이론계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본다. 근대 자연과학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여러 영역의 인식론의 다양성을 재고하고 철학적 정초를 놓는 시도는 후설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후설은 실증주의 인식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상 그 자체, 혹은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다양한 영역에 공통된 보편적 존재론과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영역적 존재론을 구별하여 인식론적 다양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후 후설의 노력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가다머 등 이후의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실존주의, 해석학, 탈근대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흐름은 국제정치학 이론의 전회들을 총체적으로 재조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존의 실증주의 인식론에 대한 실증주의 내재적 비판의 흐름으로 인지과학에 기반한 구현주의(embodimentalism)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식론과 존재론의 반성에 기초한 최근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의 중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73 14. 5. 9. 오후 12:20

요한 성과들을 조망한 후, 이들이 지금의 국제정치학 이론,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이론에 주는 함의를 논한다.

Diverse movemen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rom the late 1980s have produced many turns, such as historical turn, historical sociological turn, linguistic turn, psychological turn, post-modern turn, critical turn, and post-Western turn, all of which tackle the issue of overcoming epistemological positivism. Theories in this trend criticize positivist epistemology emulating natural science, reformulate ontological basis of existing theories, and reflect upon axiological basis of current value-free theories. Lively debates result in theoretical pluralism, epistemological eclecticism, or even the "end of IR theory", which do not fullfil the purpose of creating new metatheoretical basis to deal with current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21st century.

This article, with the notion that comprehensive philosophical review of post-positivist epistemology is needed, purports to study Edmund Husserl's phenomonological epistemology, and embodimentalism which is based upon cognitive science. Husserl initiated the philosophical movement to criticize positivism which was later succeeded by other hermeneutical philosophers such as Martin Heidegger and Hans-Georg Gadamer, existentialists, and postmodernists, and many points of his criticism hav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is article also reviews recent theoretical efforts regarding practice turn, and psychological turn against this backdrop, which is followed by some considerations on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74 14. 5. 9. 오후 12:20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KEYWORDS 탈실증주의 post-positivism, 국제정치학 이론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인식론 eistemology, 후설 Husserl, 현상학 phenomenology, 해석학 embodimentalism, 구현주의 hermeneutics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75 14. 5. 9. 오후 12:20

I 서론

최근의 국제정치학 이론계는 수많은 전회(turn)의 계기들을 겪고 있다. 1980년대 말 광범위하게 탈실증주의 논쟁이 일어난 이후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찾는 모색이 활발히 일어났다. 냉전의 종식, 지구화, 9·11 테러 이후 비서구 국제정치의 복잡성 증가 등의 현실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역사적 전회, 역사사회학적 전회, 언어적 전회, 실천적 전회, 심리학적 전회, 탈근대적 전회, 탈식민적 전회, 비판이론적 전회, 탈서구적 전회 등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실증주의의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고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메타이론의 구성요소들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기반한 자연과학 인식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인식론을 찾는 동시에 국제정치 현실이 발 디디고 있는 존재론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치중립성이 무비판적으로 전제된 가치론적 현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다. 서구 지성사를 주도해 온 근대과학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의 기획에 대한 비판이 이미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점을 볼 때 국제정치학의 전회들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Kavalski 2012, 137-150).

그러나 이러한 모색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합의 가능하고 합당한 이론적 전제를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많은 전회들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결과에 대해 혹자는 이론적 다원주의, 인식론적 다양성, 혹은 급기야 국제정치이론의 종말의 상황을 논하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76 14. 5. 9. 오후 12:20

대두하고 있다(Dunne 외 2013, 405; Jackson 2010). 문제는 국제정치학 이론의 메타이론 전제들을 엄밀히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 반성, 혹은 철학적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개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등 철학적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많은 전회들의 뒤에는 국제정치학 이론계가 아닌 인접 학문, 혹은 인문학적 흐름들이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총괄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취사선택되어 국제정치이론의 전회들을 특징짓고 있는 실정이다.

실증주의 논쟁은 이미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철학과 과학철학 분야에서 일어났고, 이후 많은 사회학 이론들이 활발히 탈실증주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국제정치학 이론계가 이들에 영향을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뒤늦은 현상으로 탈실증주의를 주창하는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사회과학의 메타이론, 철학, 과학철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흐름들을 흡수하여 이를 국제정치학에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자들의 전회 간의 경쟁 혹은 난립은 사실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철학과 사회학 이론, 과학철학들 간의 경쟁을 메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회들 간의 관계를 다원주의 혹은 절충주의적으로 비교, 종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서구 근대를 관통한 합리주의,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적 흐름들 전체를 총괄하지 않고는 현재 국제정치학 이론계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 글은 탈실증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출발점을 살펴보고 국제정치이론의 메타이론적 전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의 국제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77 14. 5. 9. 오후 12:20

정치이론계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현실이 서구의 국제정치이론들로 설명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론화에도 주는 함의가 크다. 실증주의에 대한 반성은 철학의 영역에서 20세기 초부터 활발히 일어났고 이는 후에 실존주의, 해석학, 구조주의, 탈근대론 등으로 연결된다. 근대 자연과학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인식론의 다양성을 재고하고 철학적 정초를 놓는 시도는 후설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후설은 실증주의 인식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상 그 자체, 혹은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다양한 영역에 공통된 보편적 존재론과 또한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영역적 존재론을 구별하여 인식론적 다양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후 후설의 노력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가다머 등 이후의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실존주의, 해석학, 탈근대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정치학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전회들의 총체적 재조망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최근 인지과학이 발전하면서 철학을 재조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적 방법으로 기존의 과학을 메타적으로 비판하는 흥미로운 성과를 보인다. 기존의 자연과학 방법으로 인간의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결국 모순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모순의 존재를 기존의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실증주의 인식론에 대한 실증주의 내재적 비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현주의(embodimentalism)이다. 인간의 인지가 실증주의적 전제에서와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78 14. 5. 9. 오후 12:20

같이 객관과 별개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의 생활세계 안에 의식과 몸을 총체적으로 담그고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양한 구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인식에 관한 구현주의 인지과학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의 현상학과 함께 논의되고 심지어 과학이 아닌 철학적, 종교적 직관과도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우선 탈실증주의 논쟁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현상학 사조의 의미를 짚어본 후, 인지과학 분야의 구현주의와의 연결성을 살펴본다. 이어 인식론과 존재론의 반성에 기초한 최근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의 중요한 성과들을 조망한 후, 이들이 지금의 국제정치학 이론,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이론에 주는 함의를 논해보기로 한다.

II 현상학과 탈실증주의 인식론의 정초 모색

1. 실증주의 인식론 비판

후설의 현상학은 자연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만 타당한 이성이 고유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을 부당하게 침범하여 월권하는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다.[1] 대상 영역이 달라지면 존재원리 및 인식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방법론적 일원주의를 포기해야 한

1 실증주의에 대한 후설의 후기 비판에 대해서는 후설(2007) 참조.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79 14. 5. 9. 오후 12:20

다. 따라서 후설은 각 영역별로 다른 인식론이 정초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영역적 존재론을 정립한다. 그 첫 번째 작업은 반성 없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비판하는 것이다. 인식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엄밀한 반성 없이 외적 대상의 존재와 인식 과정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하는 태도는 소박한 자연과학자들의 실증주의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후설은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에서 실증주의 비판을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학문이 모든 대상 영역과 관계없이 통합적일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비판한다. 후설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무한한 존재 전체와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배하는 합리적 학문의 이념이라는 구상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것이며, 무한한 세계, 즉 여기서 이념상의 세계는 그 객체들이 우리의 인식에 개별적으로 불완전하게 그리고 우연히 접근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인식론에 의하면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일관된 방법이 도달하는 세계, 말하자면 무한히 진행해 가서 모든 객체가 결국 그것의 완전한 그 자체로 존재함에 따라 인식되는 세계로서 구상된다.

근대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일의적 세계관과 인식론은 사실 시대적으로 매우 특수한 것이다. 후설에 의하면, 고대인들은 이와 유사하지만 보다 보편적인 이념, 즉 형식적 수학의 이념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근대 초기에 와서야 비로소 무한한 수학의 지평을 실제로 획득하고 발견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그래서 대수학, 연속체 수학, 해석 기하학의 단서가 생긴다. 새로운 인간성이 고유하게 지닌 대담성과 독창성에 의해 근대 초기부터 이러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0 14. 5. 9. 오후 12:20

한 새로운 의미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합리적 학문이라는 위대한 이념이 직각 예상되는데, 이 이념은 곧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무한한, 그 자체로 합리적인 전체 통일성이라는 이념이다.

여기서 수학의 우위가 나타나는데, 근대적 학문은 수학적 언어가 인간의 문제를 합당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혀 증명되지 못한 가정을 전제하게 된다. 후설이 논하는 바, 합리주의는 자연과학에 파급되고 자연과학에 대해 수학적 자연과학, 즉 훨씬 이후에 정당하게 명명된 바와 같이 갈릴레이식 자연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념을 창조한다(후설 2007, 86-87). 후설은 이러한 근원을 갈릴레이에서 찾고 있는데, 갈릴레이가 자연을 수학화함에 있어 자연 자체는 실로 새로운 수학의 주도 아래 개념화되고, 자연은 근대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자체로 수학적 다양체가 된다(후설 2007, 88). 결국 우리는 이러한 수학적 실천으로 경험적 실천에서 우리가 거부하였던 것, 즉 정밀성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이념적 형태들에 대해 이것들을 절대적 동일성에서 규정하고, 절대적으로 동일하며 그 방법에 따라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들이 기체들로서 이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밝혀지기 때문이다(후설 2007, 93).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결국 철학적 인식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세계의 참된 존재, 객관적 존재를 부정하는 인식을 얻으려고 애쓰는 각성된 노력의 결과, 경험적 측정술과 경험상 실천적으로 객관화하는 이 측정술의 기능은 그 실천적 관심을 순수 이론적 관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념화되었고, 그래서 순수한 기하학적 사고방식으로 이행하였다. 그러므로 측정술은 결국 보편적 기하학과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1 14. 5. 9. 오후 12:20

이것의 순수한 극한 형태인 세계에 대해 선구자가 된다는 것이다(후설 2007, 95).

후설에 의하면 기하학 이전의 작업 수행은 기하학에 대한 의미기반이었으며, 이념화라는 위대한 발명에 대한 기반이었다. 갈릴레이가 실천적 생활과 모든 이론적 생활의 근원적 토대, 즉 직접적으로 직관된 세계에서 이념화로써 활동하고, 기하학적인 이념적 형상들이 생기게 되는, 근원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수행으로 돌아가 묻지 않았다는 사실은 숙명적 태만이었다(후설 2007, 122).

결국 실증주의에 의해 오도된 학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회귀, 판단중지가 필요하게 된다. 후설에 의하면, 학문 이전의 생활과 그 환경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과학이 처음부터 헌신해야만 할 궁극적 목적, 즉 어쨌든 이런 생활 자체 속에 놓여 있고 생활세계와 틀림없이 관계되는 목적에 이르기까지의 성찰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수행하지 않고서, 기술적 작업으로부터 그 본래의 의미로 되돌아가서 그때그때 성찰하는 것은 모두 항상 이념화된 자연에 머물렀다(후설 2007, 123).

수학과 수학적 자연과학이라는 이념의 옷, 혹은 이것에 대해 상징적, 수학적 이론들의 상징의 옷은 과학자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양인들에게 객관적으로 현실적이며 참된 자연으로서 생활세계를 대표하고, 생활세계를 분장시키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이 이념의 옷은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을 참된 존재로 간주하게 만든다. 게다가 그 방법도 정말 세계적으로 실제로 경험된 것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의 내부에서 근원적으로 유일하게 가능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2 14. 5. 9. 오후 12:20

한 조잡한 예견들을 과학적 예견들에 의해 무한히 진보하는 과정에서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 이념의 옷을 입힘으로써 방법, 공식, 이론의 본래적 의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고, 방법이 소박하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게끔 되었다(후설 2007, 126).

결국 갈릴레이는 발견의 천재인 동시에 은폐의 천재였던 것으로 비판받는다. 후설에 의하면 그는 수학적 자연, 즉 방법적 이념을 발견하고, 무한한 물리학적 발견자들과 발견들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는 직관적으로 주어진 세계의 보편적 인과성에 대립하여 그 후 곧바로 인과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이념화되거나 수학화된 세계의 참된 아프리오리한 형식, 따라서 자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정밀한 법칙에 지배된 틀림없는 정밀한 법칙성의 법칙을 발견한다. 이 모든 것은 발견인 동시에 은폐이며,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진리로 받아들인다(후설 2007, 127).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실증주의 국제정치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학의 근본 이념에 근거한 인식론과 언어관, 학문관은 국제정치를 자연세계와 일치시키는 무비판적 전제에 의해 학문과정에 도입된다. 국제정치의 생활세계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 노력 없이 자연과학의 이념의 옷을 입힌 결과는 결국 학문적 결과와 현실 간의 괴리이다. 물론 실증주의적 분석은 일정한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실증주의를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실증주의가 공헌하는 영역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3 14. 5. 9. 오후 12:20

2. 후설의 현상학 방법론의 전개

현상학은 한 영역의 인식론이 다른 영역으로 무비판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비판한다. 후설은 존재자 혹은 사물로서의 세계와 의미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실증주의적 인식, 표상주의적 인식이다. 후설은 19세기 말 팽배했던 물리학적 실증주의, 역사주의, 문헌학적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영역적 존재론에 기초한 인식론적 회의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에 대한 일체의 선입견을 판단중지한 후 "사태 자체로" 환원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추구해야 한다.

후설은 생활세계를 "주제화할 수 있는 두 가지 근본 방식"에 관해 논하면서, 자연적 태도에서 생활세계를 다루는 방식과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생활세계를 다루는 방식을 논의하고 양자의 관계를 설정한다. 자연적 태도에서 존재자의 총체로서 드러나는 생활세계를 고찰하면서 생활세계의 일반적 구조, 생활세계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것, 즉 생활세계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생활세계는 상대적이고 변화하는 것으로서 나름대로의 시간적,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본질구조를 해명하는 것이 생활세계적 본질론이다. 그러나 자연적 태도를 벗어나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작용에 의해 형성된 "의미로서의 세계"를 해명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세계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생활세계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이다.

후설의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구조를 분석하는 현상학적 심리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4 14. 5. 9. 오후 12:20

학의 단계를 넘어 구성적 현상학의 단계로 넘어간다. 구성작용이란 우리의 의식이 낮은 단계의 대상적 의미로부터 더 높은 단계의 대상적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직접 주어진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초월하여 더 많은 것을 사념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는 작용이다. 결국 구성적 현상학에서는 의식의 초월작용이 주제화되고, 구성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이 되는 것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주관의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핵심주제인 초월론적 주관이 어떻게 다양한 유형의 초월론적 기능을 매개로 다양한 유형의 의미로서의 대상을 구성하는가를 연구한다. 결국 "실제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사념함"을 의미하는 초월론적 구성작용이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체의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구성작용이 없다면 대상에 대해 논하거나 학적으로 탐구할 수 없으므로 초월론적 구성작용은 결국 모든 학적 탐구를 수행하기 위한 가능근거가 되는 것이다(후설 2012; 이남인 2013; 2004, 77-80).

문제는 이러한 초월론적 현상학의 해석 방법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후설이 비판한 실증주의, 과학주의적 해석도 하나의 정당한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실증주의가 자신의 이론화를 "하나의 해석"이라고 보지 않고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라는 과대설정에 있다. 생활세계의 구조해명은 언어로서 하나의 방법을 삼을 수 있으나, 모든 언어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고, 더구나 갈릴레이식 과학 언어는 자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성이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는 해석이다. 초월론적 주체는 단순히 반성의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매순간 다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5 14. 5. 9. 오후 12:20

양한 유형의 해석 작용을 수행하는 해석의 주체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지평지향성과 세계의식으로, 실천은 일상적 삶에 있어서의 실천뿐 아니라 인식적인 이론적 실천도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된다(이남인 2004, 373).

후설은 후기 현상학에서 이를 발생론적 현상학으로 보고 유아론적 세계로부터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주관적 발달과정을 타자경험들에 의해 타자들의 존재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본다(이종주 2012, 245). 주관은 유아론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서 주관의 발달과정과 타자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의 지평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3.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존재론

하이데거는 후설의 발생적 현상에서 논의된 주관의 사회적, 역사적 지평에 집중하여 주관의 해석적 배경을 좀더 정교화했다. 하이데거의 경우 자신의 해석학적 현상학에서 세계-내-존재의 개념을 설정하고, 인간이라는 용어 대신 현존재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세계 속에 던져진 의미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존재이다. 실존론적 분석에 기반한 인식의 조건으로 하이데거는 세계-내-존재의 양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식주관의 객관은 이미 인식주관과 생활세계적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주관이 어떻게 내면에서 나와서 밖에 있는 대상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존재는 이미 세계 속에 몰입해서 살고 있다는 점, 즉 대상은 이미 객관적 관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6 14. 5. 9. 오후 12:20

조의 조건이 아니라 주관과 실제 실천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내 다른 존재를 사용하고 배려하는 것은 현존재가 일상적으로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관계를 맺는 양상을 의미하는데, 대상을 실존적으로 대한다면 인식주체는 용재성, 즉 도구사용의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증주의는 실존론적 분석과 어긋난다(소광희 2013, 64-65). 실증주의는 인식 대상을 용재성을 결여한 순수 관조 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론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용재성을 전제로 순수 인식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지만 실존론적 존재론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본래적 실증주의적 전제를 애초부터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후설의 현상학과 일맥상통한다. 현상학적 의미에서 이해되는 현상이란 존재의 구성사항이며,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적 의미는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상학이란 존재론의 주제가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며, 이를 증명하면서 규정하는 양식이라고 본다. 현상학적인 현상 개념이 지향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은 존재자의 존재의 모습이며, 그 존재의 의미이자 그 존재의 변양태와 파생태이다. 존재자의 존재는 '그 배후에' 뭔가 다른 현상하지 않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하이데거 2008, 51). 따라서 현상학은 엄밀학으로 각 영역의 구분을 엄밀하게 지키면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구체적 자아,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자아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인 삶, 즉 "사회의 실재적인 삶의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하이데거 2008, 28-29).

해석 작업을 통해 현존재 자신에게 속해 있는 존재 이해를 통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7 14. 5. 9. 오후 12:20

해 존재의 본래 의미와 현존재 자신의 존재의 근본적인 여러 구조가 알려지게 된다. 현존재의 현상학은 따라서 근원적 어의에서 해석학인 것이다. 존재의 의미와 현존재의 근본구조를 타개, 해체하는 것에 의해, 모든 존재자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의 지평이 명백해진다(하이데거 2008, 53). 현존재는 표상주의가 상정하는 것처럼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절연된 의식이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에 머물다가 가끔 표상을 매개로 세계나 대상과 관계하는 초월적 주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식의 촉수가 세계와 세계 내 대상과 맞닿아 있는 존재로서 처음부터 자신을 초월하여 세계로 나아가 있는 존재인 것이다(이기상 2008, 115).

후설의 구성적 현상학에서도 해석을 이야기할 때, 해석은 개별적 대상에 대한 파악에 앞서 막연하기는 하지만 세계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대상도 무지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며, 막연하고 비규정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선지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막연하고 비규정적 선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적 지평이 확대되고, 이후 내적 지평에 대한 구체적 규정작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앎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이를 후설은 해명작업이라고 명명한다. 결국 어떠한 체험도 해석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구성적 현상학, 초월론적 현상학은 해석학과 연결된다(이남인 2004, 374).

결국 현상학적 해석학은 인간이 자신의 구성작업을 다시 반성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작업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초월론적 반성구조 전체를 탐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체험뿐 아니라, 체험류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체험들의 구조를 해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8 14. 5. 9. 오후 12:20

명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후설의 초월론적 해석학은 데카르트류의 초월론이 현 존재의 한 단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체험의 전체 구조를 탐구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이해된다. 데카르트가 생각하므로 존재하는 현 존재의 순간적 단면을 이론적 전제로 삼았지만, "이러한 핵을 넘어서 비규정적인 일반적, 잠정적 지평, 즉 본래적으로 경험되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함께 사념된 지평"을 탐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후설 2001, 62; 이남인 2004, 378 재인용). 결국 해석학적 초월론적 현상학의 목표는 모든 초월론적 모나드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절대적 해명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초월론적 초월세계가 개별적인 초월론적 주관의 현재 체험들의 지평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이남인 2004, 379-380).

하이데거도 인간, 즉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에 입각해서 자기를 이해한다고 전제한다. 현존재는 자신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자신으로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으로 있지 않은 방식이 비본래적 삶의 방식이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주도적 이해를 하는 삶의 방식이 실존적 삶의 방식이다. 현존재의 구조적 자기성찰 내지는 자기분석인 실존분석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들의 연관, 즉 실존하는 현존재의 존재틀인 실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론은 거기서 연원할 수 있는 기초존재론을 가져야 하고, 이는 실존론적 분석론에서 탐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존재론을 결여한 채 비본래적 방식으로 실존의 구조를 가정하는 것이 실증주의적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소광희 2013, 50; 하이데거 2008, 21).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89 14. 5. 9. 오후 12:20

4. 언어, 몸, 감정

모든 인간이 자신의 생활세계 속에서 형성되는 개성을 가지고 대상과 타인을 대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타인을 해석해가는 존재이다. 자신의 구성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스스로를 해석하며 현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형성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호, 즉 언어, 텍스트나 말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가다머에 의하면 이해라는 것은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지평들의 상호융합 과정이고 이는 일차적으로 언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가다머 2012, 192).

가다머는 해석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딜타이에 관해 논하면서 일정한 심적 구조를 지닌 개인은 주위 환경의 제약과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형성하는데, 그 고유한 개성은 어떠한 원인의 결과만은 아니어서 인과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 있는 통일성을 이룬다고 본다. 이는 삶의 통일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스스로 드러내는 매 순간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고 따라서 모든 표현에 비추어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개성은 인과관계의 질서와는 무관하게 그 무엇인가가 독특한 모양새로 완결된다. 이것이 딜타이가 말하는 구조적 인과성이며, 후설의 개념으로 보면 의미인 것이다(가다머 2012, 81). 딜타이는 의미가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표현이라고 보았고,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삶 자체가 항상적인 의미단위들을 형성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0 14. 5. 9. 오후 12:20

있다고 보았다. 즉 삶이 해석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과학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가다머 2012, 82).

해석은 선개념과 더불어 시작되는데 선개념은 다시 더 적절한 개념에 의해 대체되는 끊임없는 과정을 겪는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새로운 기획은 이해와 해석의 의미형성 과정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가다머가 해석한 하이데거의 이해 과정이다.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태 자체를 대하면서 입증될 수 없는 선입견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들고 올바른 의미를 설정하는 것은 사태를 대하면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의미를 완성해가는 것이 이해의 방법이고, 자신의 선입견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가다머 2012, 140-141).

이해가 객관적이기를 바란다면 선입견 없는 이해가 존재하기를 바라겠지만, 가다머는 이 대목이 철학적 해석학이 비판하는 주된 논점이라고 지적한다. 즉 일체의 선입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의 전면적인 요구가 또 하나의 선입견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선입견을 바로잡을 때에만 인간 존재뿐 아니라 역사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유한성에 대한 이해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가다머 2012, 151).

언어를 매개로 한 존재구성 및 이해를 넘어, 몸을 매개로 한 자아구성에 집중한 철학자는 메를로-퐁티이다.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신체 개념을 축으로 발생적 현상학 위에서 신체현상학을 적용시키며 인간의 지각이 몸 전체를 축으로 구성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후설도 자연인식, 자연구성에 관한 해명의 준비단계의 하나로 신체론을 다루고 있는데, 메를로-퐁티는 이를 발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1 14. 5. 9. 오후 12:21

전시켜 기존의 심신 이원론을 극복하고 세계 경험의 신체적 구조, 즉 육화의 문제를 다룬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불가피하게 신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 차원에서 완전하고 투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편견 없는 순수명증한 인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지각의 현상학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함의는 매우 크다. 인간이 신체를 매개로 생활세계에서 인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인간의 몸의 개별적 작동방식과 사회적 작동방식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는 국제정치의 생활세계에도 적용된다. 특히 인간의 몸은 지각뿐 아니라 감정, 정서, 느낌 등과 상통하기 때문에 감정의 국제정치학, 심리학적 전회를 재조명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메를로-퐁티 2002; 조광제 2004, 최재식 2009).

III 구현주의적 전회와 탈실증주의 인식론의 모색

이상에서 논한 바들은 철학적 의미에서 생활세계를 복원시키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몸과 감정, 존재 전체를 대두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철학적 반성을 적극적 의미의 이론화로 발전시키려면 보다 적극적인 이론화의 계기 혹은 전제가 필요한데, 이 과정은 좀 더 명료한 개념들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현상학과 해석학의 이론적 전제들을 흡수하면서 이를 인지과학의 측면에서 정교화한 최근의 경향이 구현주의(embodi-mentalism)적 전회로 나타난다. 서구 정신사에서 지배적 힘을 행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2 14. 5. 9. 오후 12:21

사하고 있는 이성 중심, 정신 중심, 원리 중심, 추상주의, 분석주의, 환원주의, 개체주의 등의 전통에 맞서, 인간 실존의 신체화, 환경구속성, 실천성, 상황화, 맥락화, 시간구속성 등을 강조하는 사상적 문화적 흐름으로 구현주의라고 할 수 있다(이기홍 2007, 320; Varela 외 2013; Lakoff and Johnson 2002; McClamrock 1995; Clark and Chalmers 1998, 10-23; Brown 외 1989; 32-42; Hutchins 1995; Wilson 1994, 351-372; 이기홍 2009; 윤보석 2008). 기존에 몸과 의식, 개인과 사회, 이성과 감성 등을 이분법적으로 보던 것을 구현 개념을 통해 신체적 구현, 환경적 구현, 실천적 구현, 상황적 구현, 신체-내재적 구현, 방법적 구현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현상학과 해석학, 특히 메를로-퐁티의 몸철학과 연결되는 탈실증주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강화한다.

이 시각에 의하면 인지는 상황의존적이고, 시간에 구속을 받으며, 인지작업의 일부는 환경에 분산될 수 있고, 환경은 인지계의 한 부분이고, 인지는 행위를 위해 있으며, 오프라인 인지는 몸에 기초한다는 것이다(Wilson 2002, 625-636). 즉 인지는 체현된(embodied), 구현된(embedded), 확장된(extended), 상황지어진(situated), 분산된(distrubuted), 넓은(wide) 인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현주의 인지론자들은 인지를 행위적 실천의 한 형태로 여겨 사용하는 몸/신체, (물리적/문화적)환경, 맥락, 상황, 시간성 등의 요소들로 실천영역을 설명하고자 한다.

바렐라의 경우, 인간의 인지는 대부분 무의식적인 몸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복잡계적으로 발제된 의식이 반성적 인식을 구성한다. 이 과정은 진화의 역사를 통해 체화된 것이며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3 14. 5. 9. 오후 12:21

몸의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인식과정은 몸과 세계의 무의식적 교환을 통해 형성되고 이를 사후에 극히 일부분만 의식이 자기반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이고, 합의적이며,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하는 세계가 합법칙적이므로 과학은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인간이 스스로를 온전히 자기의식적으로 믿는다 해도 일상 생활을 문제 없이 영위할 수 있고, 완전히 실용적인 과학과 공학은 그릇된 형이상학적 가정 위에 기반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Varela 외 2013; 365).

신체에 근거한 인지는 비단 합리적 인지뿐 아니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마지오가 논하는 바처럼, 인간의 신체는 자기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일정한 정서를 산출한다. 또한 인간의 뇌는 이러한 정서에 걸맞는 사고를 가진다. 즉 정서에 어울리는 사고의 출현, 혹은 사고방식 및 심적 절차 양식의 출현이다(Damasio 2013).

신체화된 의식을 가장 강조된 형태로 이론화하고 있는 것은 레이코프와 존슨이다. 이들은 마음이 본유적으로 신체화되어 있고, 사고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추상적 개념들은 대체로 은유적이라고 본다. 인지과학의 발견에 기대고 있는 이러한 논의는 이성이 탈신체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 몸, 그리고 신체적 경험의 본성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이성은 탈신체화되고 초월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자체의 고유한 구조가 신체화의 세부사항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이다. 추상적 이성은 하등 동물에 존재하는 형태의 지각적, 근육운동적 추론에 근거하고 그 추론을 이용하여 진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은 초월적 의미로 보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4 14. 5. 9. 오후 12:21

편적이지 않으며, 신체화된 방식으로 존재한다. 또한 이성은 의식적이지 않고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은유적·상상적·감정적 요소와 일맥상통한다(Lakoff and Johnson 2002, 25-27; 노양진 2004).

결국 구현주의는 인간 실존의 구체적·실질적 기반을 보이며, 인간 실존의 자연성을 재복원한다. 따라서 구현주의는 실존적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며 철학적으로는 현상학적 해석학, 실존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인간 실존의 자연적·문화역사적 조건을 탐구하며, 기존의 이성 중심, 정신 중심의 실증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가장 중요한 기점은 몸 담론이며, 이외에도 환경, 타자, 상황성, 맥락성 등 생활세계적 조건의 구성적 역할에 주의를 기울인다(이기홍 2007, 338).

구현주의는 비단 철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및 국제정치학적 생활세계 일반을 총괄적으로 조망하는 기본 시각을 제공해주며, 향후 이론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구현 방법의 기초를 인지과학에 가둠으로써 철학의 내성적 방법을 넘어 관찰과 이론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탈실증주의 비판을 실증적으로 함으로써 실증주의의 한계를 보임과 동시에 인식론적 유용성의 한계도 함께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2]

2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은용수(2013) 참조.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5 14. 5. 9. 오후 12:21

IV 국제정치학의 실천적, 심리학적 전회 분석

1. 실천적 전회

국제정치의 행위자에 대한 존재론적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인간의 행동을 "실천"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활세계를 복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논한 현상학 및 구현주의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풀리오트는 인간의 행동을 이론화할 때 의식적 심사숙고과정, 혹은 반성과정을 통해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다. 인간의 행동은 항상 규칙에 근거하거나 혹은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실천(practice)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 인간은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적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하며 이는 그 자체로 명백하거나 상식적인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현상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생활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실천 속에서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성은 때때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간과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론적으로 참으로 증명된 생각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유용성이 있을 때 의미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윌리엄 제임스나 후에 로티로 이어지는 실용주의 철학의 진리관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의 행동을 목적 합리적 행동으로 이론화하지 않고 실용적 실천에 근거하여 간주하는 것이 일종의 "실천적 전회"를 이룬다. 이러한 의미의 인간의 실천을 이론화하는 과정은 표상주의적 관점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6 14. 5. 9. 오후 12:21

을 벗어난 인식론에 의해 가능하다. 인간은 실천의 근거가 되는 비표상주의적 인식을 하며 행동의 준거를 만들고, 이러한 실천의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론 역시 이와 조응하는 비표상주의적 인식론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다.

표상주의는 인간의 행위가 논리적으로 일관된 표상 혹은 기호의 체계로 재생되거나 재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인식론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실천으로 간주할 경우 여기에 대응하는 표상체계를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표상을 벗어난 인간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학이론 분야에서 블레이커는 모사적 표상론에 대비되는 보다 풍부한 미학적 표상론을 설정한다. 전자가 해석의 과정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진실과 사실의 영역을 가정하는 데 반해 후자는 모든 표상이 본질상 불완전하며 인식자의 해석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미학적 표상론은 현실과 표상체계, 지시체와 기호, 표상되는 것과 표상 간의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러한 격차의 영역이 바로 정치를 구성한다고 본다. 회화로 하면 사실주의 회화와 인상파 회화 혹은 초현실주의 회화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래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조적 방법이 필요하다. 기술적 이성을 넘어선 민감성이 필요한데, 이는 언어로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넘어서는 것과 연결된다. 블레이커는 가다머를 인용하면서 언어적 표상 너머의 예술적 표현과 전달이 문제해결에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Bleiker 2001, 512)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7 14. 5. 9. 오후 12:21

인간의 행동을 실천으로 보면 모사적 표상론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이를 넘어서는 창조적 인식론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천을 만들어내는 환경, 혹은 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진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실천은 이성적으로 고안된 전략적 행동일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규정된 독특한 장, 혹은 습관의 영역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정치이론은 표상적이지 않은 행동과 실천을 설명하는 인식론적 도구를 결여하고 있다. 행동을 설명할 때 결과의 논리나 적절성의 논리를 들어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이 역시 불완전한 구분인데, 적절성의 논리라 하더라도 역시 도덕적 숙고 과정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표상적 인식론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표상론적 전제는 앞서 논의한 실증주의, 혹은 근대계몽주의 기획의 공통된 가정으로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하는 존재론적 명제에서 기인한다.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 인식 중에서 명백한 합리성과 맥락적 합당성(contextual reasonableness)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회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된 것이다.

실천적 전회는 사실 이전의 고전적 현실주의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상당 부분 논의된 바 있다. 이들 역시 인간의 정치적 행동을 이론적 행동과 구별하여, 이를 분석적으로 개념화하기도 하고 프루던스의 개념을 바탕으로 규범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인간의 행동을 이론적 이성과 실천적 이성으로 나누는 전통은 서구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로 소급된다. 이론적 이성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의식적 숙고에 의해 매개되고 추상적 기호체계로 정리되어 전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8 14. 5. 9. 오후 12:21

개되는 데 반해, 실천적 이성은 전체적이고 느낌에 기반하며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사리를 분별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나 은유, 내러티브에 근거하여 전개되고 특정 문맥에 근거한 지식을 제공하며 스스로 자명한 논리로 설득되는 특징이 있다.

실천적 이성의 개념을 고전적 현실주의가 받아들여 이를 체계화했다. 특히 행태주의가 팽배하던 2차 대전 직후의 시절, 이를 비판하면서 규범적 성격이 짙은 새로운 정치이론의 계몽을 주장한 바 있다. 기존의 계몽주의가 진보, 발전, 이성에 대한 무비판적 믿음을 가졌던 것을 비판하며 새로운 계몽의 필요성을 논했는데, 모겐소, 니버, 헤르츠, 케넌 등 미국에서 활동한 고전현실주의의 이론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정치가 합리주의, 행태주의에 의해 제한된 관점에서 이론화된 상황을 비판하면서, 즉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삭감되고, 과학적 방법으로 국제정치가 이론화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규범적 관점이 상실된 국제정치이론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합리주의적 자유주의가 정치 및 국제정치에 대한 관점을 제한했고, 더 나아가 현실정치에서 파시즘과 독재, 민족주의의 폐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겐소는 국제정치의 과학화야말로 새로운 억압을 낳는 것으로 보았으며, 규범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니버 역시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악을 논하고 실천의 필요성을 논했으며, 헤르츠는 기존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통합필요성을 논한 바 있다(Williams 2013, 647-665).

실천적 이성, 혹은 인간 행동을 실천적으로 보는 관점은 인지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인간의 학습이란 의식적이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99 14. 5. 9. 오후 12:21

고 합리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진다는 것이다. 소위 "몸에 밴 지식"으로 이러한 지식은 합리적, 비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과 환경적 요구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합리성과 무관한(arational)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들은 비표상적 지식으로, 언어로 완전히 표상되거나 이론화될 수 없다.

풀리오트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실천의 존재론적 배경, 혹은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부르디외의 실천론에 의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행동의 실천적 성격을 존재론적 가정으로 삼게 되면 새로운 인간의 인식형태에 주목하게 된다. 즉 암묵적 지식, 배경지식, 경험적 지식 등 명백하게 표상되거나 숙고되지 않은 지식, 실천적 지식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표상적 지식이 의식적이고, 언어화가 가능하며, 의도적인 반면, 실천적 지식은 암묵적이고 언어분절적이지 않으며 자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추상화가 가능하고 명확한 도식에 의해 분석 가능한 반면, 후자는 경험적으로 얻어지고 합당성을 가지지만 논리적으로 분석되기는 어렵다(Pouliot 2008, 35).

실천의 논리는 실천의 장인 아비투스와 연결된다. 아비투스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비분석적·실천적 지식으로 구성되며, 개인들로 하여금 무반성적·비숙고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일정 경향의 집합체이다. 하나의 아비투스에 속한 개인은 비표상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반성적 설명이 어려운, 합당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관계적으로 형성되며 간주관적 성향들을 포괄하여 사회적 관계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0 14. 5. 9. 오후 12:21

를 만들어내는데, 관계적 특성들이 개인들로 내면화되어 유지되는 것이다. 개인은 특정 성향에 따라 자신의 실천을 생산하는데, 이는 습관적 행위 생산과는 별개로 그때그때 아비투스에 기반하여 새로운 행동의 체계를 일신하여 생산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비맥락적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아비투스 속에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합당한 행동을 생산한다. 현상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세계 속에서 개인이 발생하고 스스로를 구성하며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비투스를 강조하는 실천적 전회는 생활세계 내 존재인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의 일면을 잘 파악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세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행동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세계 속에 던져진 채로 세계 내 존재로서 대상과 함께 실천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사회학 분야의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론이 주는 함의는 아비투스가 권력의 장이며, 개인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아비투스에 동시적으로 속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각각의 아비투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논리를 가지고 개별의 장으로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성된 특수한 권력관계를 체현하고 있다. 아비투스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로 하여금 의미 있고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구성한다. 이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훨씬 근본적인 게임의 규칙을 의미하는데, 적절성의 논리가 합리적·의도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1 14. 5. 9. 오후 12:21

적 자기반성에 의해 지탱되는 데에 비해 아비투스적 행동은 훨씬 근본적으로 구성적이기 때문이다(Pouliot 2008, 42).

호프는 이러한 풀리오트의 아비투스 이해가 일면적이라고 본다.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습관의 역할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호프는 인간이 습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아비투스론이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회구조에 침잠하여 영향받고 있다고 본다. 실천적 전회는 여전히 행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가정하여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습관은 변화를 막는 막강한 힘으로 사회적, 인식적, 때로는 생리학적 상황으로 현상유지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Hopf 2010, 545). 부르디외 역시 습관을 독사(doxa)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인식된 세계에 대해 전통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무비판적으로 선취된 습관의 구조는 행위자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실천을 현상유지적으로 유지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실천적 전회에서는 실천의 힘을 과대 이해하여 사회질서에서 행위자의 역할과 행위자가 발휘하는 변화의 힘을 과대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호프의 습관론은 현상학적으로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상황을 보다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편익계산을 하여 습관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회구조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물려받거나 모방하면서 내재화한다. 이러한 습관은 감정적 요소와 함께 취득되는데, 타인, 다른 사회, 다른 국가에 대한 신뢰 혹은 적대감 역시 습관과 같은 논리에 의해 내재화되어 자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Hopf 2010, 541-542).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2 14. 5. 9. 오후 12:21

사회는 이러한 습관적 대응을 강화하고 습관적 표준형태가 자기실현적이며, 자동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풀리오트와 호프의 논의는 국제정치적 생활세계의 논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탈실증주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보다 철저하게 보여주는 장점을 가진다. 풀리오트는 안보 공동체를 분석하면서 외교행태가 하나의 아비투스로 자리잡아, 공동체를 만드는 기초적 장이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국가들 간에 실천을 통해 자리잡은 신뢰는 역사적 경험과 관계 속에 녹아들어 있어 안보공동체의 구성적 요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반성적 행위를 넘어서는 외교적 신뢰를 구성하고, 문제를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Pouliot 2008, 117-118).

여기서 풀리오트는 이러한 외교적 실천이 습관은 아니라고 본다. 일상화된 외교행태는 습관적 반복은 아니며 일정한 틀을 가진 실천적 경향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호프의 습관론과 차이가 난다. 호프는 국제정치적 행위의 상당 부분은 실천의 영역 이전의 습관에 기초한 것이 많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일례로 국가 간 신뢰를 들 수 있는데, 한 국가의 주된 정책결정자가 타인, 혹은 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이는 자동적이고 비반성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국제정치에서 습관적 행동이 관찰되면 여태까지의 합리주의적 가정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을 든다. 만약 한 행위자가 파트너에게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상황과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고,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합리적 계산과 무관하게 배반하게 된다. 결국 수인의 딜레마 게임의 주된 가정인 불완전한 정보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3 14. 5. 9. 오후 12:21

및 소통 불가능성은 그리 큰 변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우적관계는 합리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위자의 인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에 안보딜레마 역시 무의미해진다. 국제정치에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을 원용하는 현상들, 즉 군비통제, 무역레짐, 상호 협동 사례 등을 분석할 때, 만약 습관의 힘을 강조하게 되면 기존의 실증주의적 분석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오히려 생활세계적 국제정치의 장에 침잠해 있는 행위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Pouliot 2008, 145-149).

2. 심리학적 전회

아비투스와 습관의 힘을 강조하는 전회는 감정의 요소를 강조하는 국제정치이론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머서는 감정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신호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감정적 요소가 이미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한 틀에 의해서, 가다머적 표현으로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상대방이 일정한 신호를 보내면 이러한 신호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믿을 만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지식을 전제한 것이고, 불완전한 지식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믿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은 신뢰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구성하는데, 신뢰를 결정하는 증거에 대한 해석이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만약 객관적으로 신호에 대한 믿음이 결정된다면 이는 이미 믿음이 아니고 지식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4 14. 5. 9. 오후 12:21

의 영역이 되고 만다. 머서는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이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상황 분석에 녹아 있었음을 보여 감정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Mercer 2013, 225).

감정은 또한 규범과 정체성, 신념체계 및 인지과정에서 인식자에 갖추어져 있는 습관이자 기억이라고 본다. 특히 감정이론에서 윌리엄 제임스는 감정이 인간 신체적 현상이라고 간주함으로써 몸과 감정의 긴밀한 연관성을 논하는데, 사회관계에서 감정적 차원을 포착한다는 것은 결국 몸과 정신 간의 유기적 관련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Ross 2006, 197-222). 로스는 국제정치현상에서 감정의 역할을 구성주의적으로 파악하는데, 웬트의 경우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인간의 관념을 중시했다면, 로스는 인간의 합리성에 과도하게 의존한 웬트와는 달리 감정의 구성적 역할에 주목한다. 로스는 구성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기호체계가 관념적, 내용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간주한다. 오히려 기호체계는 라캉의 견해를 빌면 정서적, 감정적 내용을 내재한 상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의 구성적 역할에 주목하게 되면 물질과 의식, 몸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감정은 정신적 반응이 몸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과 사회적 차원을 함께 볼 수 있는데, 감정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기 때문이다(Ross 2006, 214).

에즈넥은 보다 경험적인 연구로 동맹에 내재된 감정적 차원을 분석한다. 동맹 국가들 간의 의견 충돌 혹은 전략적 갈등이 단순히 합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넘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양국의 역사 속에 내재된 감정적 차원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5 14. 5. 9. 오후 12:21

이로 인해 상호 간의 믿음에 대한 배반감이 커지고 위기감이 고조되며 유대감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에즈넥은 1956년 수에즈 운하 사건 당시 미국과 영국 관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차원을 부각시킨다. 더불어 동맹 국가들 간의 관계 회복 역시 감정 내재적 상황에서는 다른 관계보다 훨씬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다(Esnack 2011).

감정의 요소는 부정적 국제관계에도 적용된다. 파타와 피에르케는 너스바움의 감정이론에 기대어 인지주의적 감정론을 전개한다. 이에 의하면 감정은 사실상 이성적 판단이 전제되어 발생하며, 가치판단을 거쳐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감정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합리성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복리추구적 판단(eudaimonistic judgement)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정적 감정의 한 예로 모욕감(humiliation)을 고찰하는데, 자신의 위신에 대한 배반의 감정이 국제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로를 서구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정책에서 찾아내고 있다(Fattah and Fierke 2009, 67).

부정적 감정의 다른 예로는 복수감을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막연한 공격감정이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의 하나의 층위이다.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상호적 행동으로 감정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복수감은 국가 정책의 동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의 집합적 감정을 내재하고 있으며, 국민과 공유된 감정으로 이러한 감정적 틀과 규범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로웬하임과 하이만은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예를 찾고 있다(Löwenheim and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6 14. 5. 9. 오후 12:21

Heimann 2008).

감정에 주목하는 소위 심리학적 전회는 국제정치적 생활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현상 속에서 의미 있는 변수를 찾고자 한 노력이다. 특히 감정이란 개인의 선택으로 가지게 된 합리적 요소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선입적 요소를 체현한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동으로 내면화되어 정책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V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함의

이상의 논의들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데 많은 함의를 가진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현실을 설명할 때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을 직접 적용하면 정확한 분석이 어렵고 향후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서구와 비서구의 구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국제정치학 이론의 인식론적 한계 자체에서도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탈서구적 전회의 필요성이 함께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 맞는 이론화의 메타이론적, 즉 존재론·인식론·가치론적 전제를 확립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전재성 2011). 이를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앞에서 논의한 현상학과 구현주의적 전회가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서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3]

첫째, 역사의 중요성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생활세계의 발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7 14. 5. 9. 오후 12:21

생과 전개과정을, 사태 그 자체로 살펴보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간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서구 이론의 적용 및 실증주의 인식론의 적용이라는 이중적 전제가 있었고 이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사태 그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전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판단중지 및 현상학적 환원이 당분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생활세계적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 속에서 실천적 행동을 하는 동아시아인들의 현존재, 자기해석적 상황을 내재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이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시간적 차원을 전제한다. 따라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사례가 아닌 발생적 생활세계로 전제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아시아인들의 존재 전반에 대한 이해로 구현주의의 전제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인들이 국제정치라는 생활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체 전반, 환경과 맥락 전반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동아시아인들은 정책결정자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미 역사적으로 구현된 신체와 환경 속에서 국제정치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실천하고 습관적으로 반응한다. 특히 국제정치의 영역은 적나라한 폭력의 영역으로 신체에 각인되는 물리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실천의 장이다. 행동의 지평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증주의적 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9세기부터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3 관련된 국내 연구로 민병원(2012), 도종윤(2013) 등 참조.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8 14. 5. 9. 오후 12:21

기억의 정치는 비단 관념과 문화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한국의 신체와 몸의 일부로 인지된 과정에 뿌리박고 있다. 따라서 신체화된 몸 이론에서 논의하듯 동아시아인은 특수한 국제정치적 몸, 특히 폭력이 체화된 몸의 인지과정을 이미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은 훨씬 깊다. 그러한 몸은 또한 감정의 차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으므로, 국제정치의 많은 문제들, 이들을 표상하는 기호들은 표상주의적이 아닌, 해석학적·미학적·이입적 이해와 처방이 필요하다.

셋째, 실증적 연구의 중요성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현실을 현상학적, 해석학적, 구현주의적 메타이론을 전제하여 분석하는 것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 문제는 실증적 연구를 이끄는 자연과학적 이성을 경험 분석의 유일한 지표로 삼는 실증'주의'이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와 탈실증주의적 메타이론적 반성을 어떻게 결합하는가가 향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화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반드시 적절한 개념틀을 필요로 한다. 개념은 동아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역사내재적 언표행위이자, 분석의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적 전회 역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대상과 분석의 차원에서 적절한 개념으로 표상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역시 서구의 역사를 내재하고 있는 서구의 개념을 빌려 쓸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서구 경험의 특수성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구적 차원의 이론적 개념을 지향하는 것이 탈서구전회의 근본 목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개념사 연구의 가치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09 14. 5. 9. 오후 12:21

참고문헌

노양진. 2004. “몸의 철학적 담론: 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넘어서.” 『철학연구』 27집.

도종윤. 2013. “국제정치학에서 주체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53집 4호.

마르틴 하이데거 저, 전양범 역. 2008. 『존재와 시간』. 서울: 동서문화사.

모리스 메를로-퐁티 저, 류의근 역. 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민병원. 2012. “이해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한국정치연구』 21권 3호.

소광희. 2013.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서울: 문예출판사.

에드문트 후설 저, 이종훈 역. 200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서울: 한길사.

에드문트 후설 저, 이종훈 역. 2012.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I』. 서울: 한길사.

윤보석. 2008. “계산주의는 구현주의와 양립가능한가?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 대한 한 고찰.” 『철학연구』 83집.

은용수. 2013.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 『국제정치논총』 53집 4호.

이기상. 2008.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서울: 살림.

이기홍. 2007. “현대에서의 구현주의적 전회, ‘구현’ 개념의 한 정의.” 『철학연구』 79집.

_____. 2009. “구현주의 인지 vs. 계산주의 인지: 윤보석 교수의 계산주의와 구현주의 양립론 비판.” 『철학연구』 87집.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 출판부.

_____. 2013. 『지각의 현상학』. 서울: 한길사.

이종주. 2012. “아이의 탄생과 발달에 대한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적 해명의 의의와 한계.” 『철학사상』 44권.

전재성. 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조광제. 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최재식. 2009. “신체개념을 통한 메를로-퐁티 현상학과 후설 현상학 연구: 신체(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40집.

한스 가다머 저, 이길우, 이선관, 임호일 역. 2012. 『진리와 방법 I, II』. 서울: 문학동네.

Damasio, Antonio 저, 임지원 역. 2013. 『스피노자의 뇌』. 서울: 사이언스 북스.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저, 임지룡 외 역. 2002.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

Varela, Francisco J., Evan T. Thompson, Eleanor Rosch 저, 석봉래 역. 2013. 『몸의 인지과학』. 서울: 김영사.

Bleiker, Roland. 2001. “The Aesthetic Turn i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Millennium*, Vol.30, No.3, 509-533.

Brown, John Seely, Allan Collins and Paul Duguid. 1989.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Vol.18, 32-42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10 14. 5. 9. 오후 12:21

Clark, Andy and David Chalmers. 1998. "The Extended Mind." *Analysis*, Vol.58, 10–23.

Dunne, Tim, Lene Hansen and Colin Wight. 2013. "The E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9, No.3, 405.

Esnack, Lucile. 2011. "Crises as Signals of Strength: The Significance of Affect in Close Allies' Relationships." *Security Studies*, Vol.20, No.2, 238–265.

Fattah, Khaled and K.M. Fierke. 2009. "A Clash of Emotions: The Politics of Humiliation and Political Violence in the Middle Eas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5, No.1, 67–93.

Hopf, Ted. 2010. "The Logic of Habit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6, No.4, 539–561.

Hutchins, Edwin. 1995. *Cognition in the Wild*. Boston: MIT Press.

Jackson, Patrick Thaddeus. 2010.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Kavalski, Emilian. 2012. "Waking IR up from its 'Deep Newtonian Slumber." *Millennium*, Vol.41, No.1, 137–150

Löwenheim, Oded and Gadi Heimann. 2008. "Reve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Security Studies*, Vol.17, No.4, 685–724

McClamrock, Ron. 1995. *Existential Cognition, Computational Minds in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ercer, Jonathan. 2013. "Emotion and Strategy in the Korea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7, No.2, 221–252.

Pouliot, Vincent. 2008. *Security Community and Through Practice: The Power Politics of Russia-NATO Diplomacy*. Ph. D.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Ross, Andrew A. G. 2006. "Coming in from the Cold: Constructivism and Emo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2, No.2, 197 – 222.

Williams, Michael C. 2013. "In the Beginning: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lightenment and the En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9, No.3, 647–665.

Wilson, Margaret. 2002.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nomic Bulletin and Review*, Vol.9, No.4, 625–636.

Wilson, Robert A. 1994, "Wide Computationalism." *Mind*, Vol.103, 351–372.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11 14. 5. 9. 오후 12:21

필자 소개

전재성 Chun, Chaesung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 및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소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논저 『동아시아 국제정치』(2011),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2011),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2012),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2010),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국의 전략 연구"(2009).

이메일 cschun@snu.ac.kr

ㅅㅔㄱㅔㅈㅓㅇㅊㅣ20_5.indb 112 14. 5. 9. 오후 12:21